<h1>나 혼자만 레벨업-5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v102b33c64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3화</p>  
<p>아차!</p>  
<p>문득 진우의 뇌리에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'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'</p>  
<p>방금 새 스킬의 힘을 보았다.</p>  
<p>처치한 몬스터를 언데드 병사로 만들 수 있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가장 시급히 수하로 만들어야 할 몬스터가 가까이 있지 않던가!</p>  
<p>진우는 한때 아이런 골렘이었던 갑옷 더미들을 밟고 꼭대기에 올라섰다.</p>  
<p>높이가 높이다 보니 던전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진우의 눈빛이 사뭇 예리해졌다.</p>  
<p>찾았다!</p>  
<p>방향을 확인한 진우는 곧장 그리로 달려갔다.</p>  
<p>탁, 탁, 탁, 탁!</p>  
<p>기대감 때문인지 질주 스킬을 쓰지 않았는데도 한걸음에 도착했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는 추출 대상이 될 몬스터의 사체를 바라보며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녀석은 죽었던 장소에 죽었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.</p>  
<p>'...핏빛의 이그리트.'</p>  
<p>머리를 잃은 채 몸이 반쯤 벽면에 박혀 있는 붉은 기사의 몰골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이그리트 앞에 섰다.</p>  
<p>몇 시간 전만 해도 목숨을 위협했던 무서운 적.</p>  
<p>하지만 이제는 최고의 재료였다.</p>  
<p>다행히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그리트에게서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대상입니다.]</p>  
<p>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방법은 알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짧게 심호흡을 내뱉은 후 나직이 명령어를 읊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그림자 추출 스킬의 시동어.</p>  
<p>그러나 스킬은 발동하지 않았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리던 진우가 다시 지시를 내리기 직전, '띠링' 하는 기계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[추출 가능한 그림자의 수를 초과했습니다.]</p>  
<p>[다시 그림자 추출을 사용하려면 '추출 해제'를 통해 그림자 병사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무(無)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.]</p>  
<p>[무로 돌아간 그림자 병사는 다시 불러낼 수 없습니다.]</p>  
<p>아, 그랬었지.</p>  
<p>스킬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.</p>  
<p>[추출 가능한 그림자 수: 30 / 30]</p>  
<p>그림자 추출의 정원은 30명.</p>  
<p>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병사의 숫자가 딱 30이라는 건데...</p>  
<p>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어느새 자신을 따라온 그림자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다.</p>  
<p>'언제 다 따라왔데?'</p>  
<p>그림자 병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다.</p>  
<p>아무튼 이그리트의 그림자를 추출하려면 시스템의 경고대로 이들 중 하나를 없애야 했다.</p>  
<p>'그런데...'</p>  
<p>잠깐 봤을 뿐인데도 내 병사라고 생각하니 없애기가 아쉬웠다.</p>  
<p>그 사이 정이 든 건지, 원.</p>  
<p>진우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림자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.</p>  
<p>시선이 옮겨갈 때마다 병사들의 이름과 레벨이 떠올랐다.</p>  
<p>[그림자 보병 Lv.1]</p>  
<p>일반 등급</p>  
<p>[그림자 보병 Lv.1]</p>  
<p>일반 등급</p>  
<p>전부 같은 이름과 레벨이었다.</p>  
<p>'하긴, 원판이 똑같으니까.'</p>  
<p>그런데 대부분이 보병인 가운데 뒤쪽에 색다른 녀석들 셋을 발견했다.</p>  
<p>'저건...?'</p>  
<p>보병들과 달리 로브를 뒤집어쓴 병사들이었다.</p>  
<p>[그림자 마법병 Lv.1]</p>  
<p>정예 등급</p>  
<p>"아."</p>  
<p>금방 정체를 추측할 수 있었다.</p>  
<p>아이런 골렘을 움직이던 마법사 셋도 '일어나라'는 명령에 따라 언데드화 된 모양이었다.</p>  
<p>'보병 27에 마법사 3이라.'</p>  
<p>이래서 희소성이 좋은 거다.</p>  
<p>숫자가 적은 마법사는 해제에서 제외하고, 결국엔 가장 가까운 병사 하나를 선택했다.</p>  
<p>...미안하다.</p>  
<p>"추출 해제."</p>  
<p>슈욱-</p>  
<p>병사는 검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.</p>  
<p>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녀석이 있었던 곳에 잠깐 애도의 눈빛을 보냈던 진우가 다시 이그리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.</p>  
<p>이제 준비는 끝났다.</p>  
<p>이그리트를 그림자로 만들기 위해 아까운 병사까지 하나 희생했다. 그만한 결실을 얻어 내야 했다.</p>  
<p>쇠뿔도 단 김에 빼자.</p>  
<p>진우는 곧바로 추출을 시도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그러자 방금과 달리 이그리트 밑에 늘어져 있던 그림자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아까 병사들에게서 그림자를 뽑아낼 때와 같은 반응이었다.</p>  
<p>'좋아!'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.</p>  
<p>느낌이 좋았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을 시도합니다.]</p>  
<p>[추출 시도 중...]</p>  
<p>이그리트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앞에 나타날까?</p>  
<p>진우는 손에 땀을 쥐었다.</p>  
<p>그러나.</p>  
<p>팅!</p>  
<p>금속이 깨지는 것 같은 기계음과 함께 알림이 떴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실패했습니다.]</p>  
<p>"뭐?"</p>  
<p>[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.]</p>  
<p>"휴우-."</p>  
<p>기회가 더 있다는 말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스킬 설명에도 분명히 대상의 능력치에 따라 추출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고 명시되어 있긴 했었다.</p>  
<p>하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황당했다.</p>  
<p>처음으로 실패가 뜨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.</p>  
<p>거기다 횟수 제한까지 있다니.</p>  
<p>'남은 기회가 두 번이라...'</p>  
<p>두 번 모두 실패하면 이그리트의 그림자는 방금 희생당한 병사처럼 무(無)로 돌아가는 건가?</p>  
<p>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니 그만 아찔해졌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불길한 생각은 하지 말자.'</p>  
<p>긍정적인 생각만.</p>  
<p>진심으로 믿으면 우주도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?</p>  
<p>진우는 불안과 기대 속에서 두 번째 추출을 시도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하지만 기대는 가차 없이 빗나갔다.</p>  
<p>팅!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실패했습니다.]</p>  
<p>[1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.]</p>  
<p>'...'</p>  
<p>살아서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죽어서도 골치를 썩이는구나.</p>  
<p>설마설마했는데.</p>  
<p>진짜 두 번째까지 실패하니 눈앞이 깜깜해졌다.</p>  
<p>후-</p>  
<p>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이제 더는 기회가 없었다.</p>  
<p>주어진 마지막 기회.</p>  
<p>진우는 눈을 감고서 생각을 정리했다.</p>  
<p>'단순히 확률일 수도 있지만...'</p>  
<p>어쩌면 이그리트의 그림자를 가지겠다는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.</p>  
<p>진우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.</p>  
<p>이그리트에게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구원을 호소하며 손을 뻗는 것처럼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진중해졌다.</p>  
<p>이어 연기에서 뻗어 나온 손을 마주잡아 주려는 듯 진우도 오른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.</p>  
<p>그때 진우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,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진동하며 울렸다.</p>  
<p>그 순간!</p>  
<p>으아아아-</p>  
<p>어디선가 묵직한 비명 소리가 들려오며 일대에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.</p>  
<p>'이건?'</p>  
<p>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바로 병사들이 튀어나왔을 때였다.</p>  
<p>아아아-</p>  
<p>예상했던 것처럼 길었던 비명이 끝날 때쯤 그림자에서 길고 검은 손이 튀어나왔다.</p>  
<p>그 손이 땅을 짚는 순간, 눈앞에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에 성공했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환호성을 터트렸다.</p>  
<p>"좋았어!"</p>  
<p>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두 번의 실패 끝에 맛본 기쁨이라 더 크게 느껴졌다.</p>  
<p>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.</p>  
<p>[군주의 목소리가 망자의 전의를 이끌어 냅니다.]</p>  
<p>[그림자 강화에 성공했습니다!]</p>  
<p>[그림자의 레벨이 7에서부터 시작됩니다.]</p>  
<p>'강화 성공?'</p>  
<p>무조건 1레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나?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메시지에서 알려 준 대로 그림자에서 걸어 나온 칠흑의 기사는 레벨 7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.</p>  
<p>"으음!"</p>  
<p>진우는 짧게 신음을 내뱉었다.</p>  
<p>기억하고 있는 이그리트의 모습 그대로였다.</p>  
<p>투구에 달린 긴 갈기.</p>  
<p>전신을 감싸고 있지만 세련돼 보이는 갑주.</p>  
<p>그리고 기품 있는 망토까지.</p>  
<p>다른 점이라면 색이 핏빛을 닮은 붉은색에서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.</p>  
<p>그것 말고는 모두 같았다.</p>  
<p>이그리트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...'</p>  
<p>새로 태어난 이그리트에게는 아까와 같은 적의가 없었다.</p>  
<p>가만히 서서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쿵쾅쿵쾅.</p>  
<p>이그리트를 바라보는 진우의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.</p>  
<p>그런데 설레는 한편으로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다.</p>  
<p>흘깃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이그리트의 머리 위로 이동했다.</p>  
<p>'얘는 왜 이름이 없지?'</p>  
<p>[?? Lv.7]</p>  
<p>기사 등급</p>  
<p>신기하게도 이름 대신 물음표가 떠 있었다.</p>  
<p>'등급도 다르고.'</p>  
<p>레벨이야 강화돼서 높다는 걸 알고 있지만, 평범한 병사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.</p>  
<p>진우의 생각을 읽은 것일까?</p>  
<p>그때.</p>  
<p>타이밍 좋게 시스템이 메시지를 보내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기사급 이상의 병사에게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부여한 이름은 그림자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.]</p>  
<p>[병사의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.]</p>  
<p>'이름?'</p>  
<p>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요구에 막막했으나, 곧 '이 녀석'에게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그대로 부르면 문제없겠지.</p>  
<p>[병사의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.]</p>  
<p>빨리 이름을 불러 달라는 것처럼 메시지가 깜박거렸다.</p>  
<p>진우는 입을 열었다.</p>  
<p>"핏빛의 이그..."</p>  
<p>아니, 잠깐.</p>  
<p>이름을 정하라는 건 그 이름으로 계속 불러야 한다는 거다.</p>  
<p>그럼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'핏빛의 어쩌고'를 언급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?</p>  
<p>상상만 했는데 닭살이 돋았다.</p>  
<p>'...너무 오글거리네.'</p>  
<p>결국 진우는 이름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.</p>  
<p>"이그리트."</p>  
<p>['이그리트'로 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"그래."</p>  
<p>진우가 말을 끝맺자마자 녀석의 머리 위에 있던 물음표가 지워지고 이그리트라는 이름이 새로이 새겨졌다.</p>  
<p>[이그리트 Lv.7]</p>  
<p>기사 등급</p>  
<p>원래 이름을 갖다 붙인 것뿐인데도 이름이 그대로 새겨지자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내 병사란 생각이 팍팍 들었다.</p>  
<p>'내 병사라...'</p>  
<p>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29기의 그림자 병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아직은 숫자가 적었다.</p>  
<p>'겨우 30명...'</p>  
<p>그림자 추출 스킬의 레벨이 낮아서 일 수도 있고, 지능 스탯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.</p>  
<p>하지만 분명한 것은 병사들의 숫자가 여기서 점점 더 불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'진짜 군대가 생겼네.'</p>  
<p>그것도 해골과 시체가 아닌, 그림자로 만들어진 군대가.</p>  
<p>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.</p>  
<p>얘네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하는 거였다.</p>  
<p>그게 참 골치가 아팠다.</p>  
<p>'해골이 됐든, 그림자가 됐든.'</p>  
<p>이런 녀석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어디 눈에 띄기만 할까?</p>  
<p>각성자의 능력이라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.</p>  
<p>집중 감시를 받아야 하거나 운이 나쁘면 소환 해제를 요구당할 가능성도 있었다.</p>  
<p>'헌터협회 감시과 우진철 과장...'</p>  
<p>그렇게 팍팍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몰려와 성가시게 만들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다.</p>  
<p>그래서 이런 스킬이 있는 거겠지.</p>  
<p>'스킬.'</p>  
<p>진우는 스킬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]</p>  
<p>액티브 스킬: 그림자 추출 lv 1, 그림자 저장 lv.1</p>  
<p>스쳐 가듯 확인했던 스킬.</p>  
<p>그림자 저장.</p>  
<p>분명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스킬명이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